

---

## 고은, 대가적 풍모 또는 진행형 시인

김재홍 · 경희대 교수, 문학평론가

---

### 머리말: 고은, 거대한 물음표 또는 느낌표

내 아기 죽어 묻어 버린 날  
악아  
악아  
네가 벌써 하늘에 있구나  
악아  
-「초생달」 전문

고은 시를 읽는 것은 때론 즐거운 충격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데뷔작 「폐결핵」 이후 첫시집 『피안감성』(1960)으로부터 최근작 시집 『부끄러움 가득』(2006)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신선한 놀라움이고 특이한 감동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초생달을 보면서 어찌 그것을 태어나서 일찍 죽은 아기를 떠올리며 ‘악아 / 악아’라는 비명소리를 내지르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네가 벌써 하늘에 있구나.”라고 영탄하면서 소멸과 생성,

죽음과 부활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노래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지상의 삶과 죽음을 하늘의 그것으로 이끌어 올리면서 하늘과 땅의 변증법적 순환 원리를 생명 법칙으로 꿰뚫어 낸 것은 가히 천부적 직관과 예언자적 지성의 발현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은 시는 분단 시대 이 땅 현대 시사에 있어 하나의 충격이고 감동이며 하나의 문학적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 판가름 날지 모르지만 오늘날 노벨상의 문턱에까지 와 있는 그의 시와 시사는 분명 분단 시대 이 땅 정신사와 예술사의 굴곡과 명암, 그리고 가능성과 한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1. 전후 폐허와 허무주의 속에서

① 누님이 와서 이마말에 앉고 / 외로운 파스·하이드라지드 병 속에 / 들어 있는 情緒를 보고 있다 / 쓰락의 목련이 쪼개지고 있다 / 한 번의 긴 숨이 창 너머 하늘로 삭아가 버린다 / 오늘, 슬픈 하루의 오후에도 / 늑골에서 두근거리는 / 神이 / 어딘가의 머나먼 곳으로 간다

—「폐결핵」 부분

② 그이들끼리 / 살데 // 골짜구니 아래도 그 위에도 / 그이들이 얼얼이 떠서 / 바람으로 들리데 // 그이들은 밤바람 소리 // 바위 보아 / 비인 산허리 / 가을이 오데 // 바위를 골라 / 나앉아 우는 추녀 끝 / 뜰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에 // 그이들끼리 / 살데 // 돌아가 한번 잊을제 / 도로가고 싶은 / 그이들의 얼바람진 산허리 // 그이들은 살데 // 그이들은 살데

—「泉隱寺韻」 전문

시 ①은 고은의 데뷔작이고 시 ②는 초기의 한 대표작입니다. 먼저 시 ①은 1950년대 전후의 폐허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폐허 의식과 절망감을 모호한 병증과 환상적인 성애로서 표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정신의 암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하자면 누이 콤플렉스와 폐결핵 무드로서 시대고와 그 비애를 극복해 내고자 하는 절

망의 포즈 또는 심리적 방어 기제(defence mechanism)를 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 「폐결핵」의 세계는 전쟁의 폭력과 폐허 속에서 방황하던 50년대 전후에 얼마나 청신한 치료 요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울러 「국화 앞에서」라고 읊조리던 서정주류의 추상적인 생명 주의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박목월류의 관념적인 자연 예찬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하나의 신선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은의 출현은 전후 시단에 있어 새로운 세대와 감수성의 도래를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자 조용한 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 정서와 일본적 감수성에 젖어 있던 앞 세대 시인들에게 하나의 충격이자 신선한 감동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 ②와 같이 고전 정서 또는 전통적인 한국적 감수성에 뿌리를 뚫으로써 고은의 시는 변증법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시정신과 정서가 그만큼 생동력과 청신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전과 현대 정신, 서양적 감수성과 동양적 감수성의 길항과 화해를 통해 고은의 시는 민족적 특수성과 함께 범인류적 보편성을 초기부터 확보해 갈 수 있었던 데서 그의 대가적 품격이 엿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 2. 산문과 세속, 세속과 현실의 경계에서

이처럼 허무주의와 그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출렁이던 고은의 시 세계는 환속과 사회 참여로 인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시 「문의 마을에 가서」는 그 상징적인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1970년대 중반에 쓰인 이 작품은 고은의 시가 산문과 세속으로, 세속에서 사회·역사적 현실로, 다시 이승에서 저승 등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경제적 작품, 결정적 계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 거기까지 닿은 길이 / 몇 갈래의 길과 / 가까

스로 만나는 것을. /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단고 /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 문득 팔짱 끼어서 /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 눈이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는가. // 겨울 문외에 가서 보았다. /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을 / 끝까지 사절하다가 /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 모든 것은 낮아서 /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 겨울 문외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문의 마을에 가서」 전문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문의 마을’이란 충청북도 청원에 있는 지도상의 한 마을 이름이지만, 그곳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승과 저승의 한 경계 또는 통로로서 제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는 문의 마을로 누군가의 초상집에 조문 간 시인이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또한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깨닫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란 “모든 것은 낮아서 /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삶을 껴안은 채 / 한 죽음을 받는 것”이며, “인기척을 듣고 /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의 일과는 무관한 일일 뿐인 것이지요. 말하자면 삶은 삶, 죽음은 죽음일 뿐인 것이며 그 점에서 장례 행위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있어 하나의 ‘무(無)의 통과 과정’ 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 시에서 ‘길’과 ‘눈’은 삶과 죽음을 표상한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길 가는 일이고, 죽음이란 결국 가던 길 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은 모든 것을 덮어 주는 평등의 모습이자, 무화(無化, Néantisation)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길이 끝나는 곳에 죽음이 있고, 눈 또한 내려서 곧장 사라지는 것이기에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겨울 문외’란 봄에서 겨울이 오고 겨울에서 다시 봄이 오듯이 삶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다시 삶이 탄생한다는 부활의 모티브를 의미하는 상징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장송

절차를 통해서 새삼 ‘내’가 이승에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제시한 데서 이 시가 의미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고은은 지난날의 속 깊던 허무주의를 청산하고 현실과 사회, 역사의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문의 마을에 가서」에서 허무의 통과 의례를 치르고 죽음을 통과해서 생생한 사회적 삶, 역사적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3.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백두산」과 「만인보」

고은의 진면목은 '70년대와 '80년대 군사 독재의 어둡고 추운 터널 속에서 찬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5·18 광주 민중 항쟁과 그에 연루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남한산성 육군 형무소에서 수감된 그 참혹한 고통의 세월 속에서 대하서사시 「백두산」과 대하연작시 「만인보」를 씀으로써 그의 대가적 풍모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① 장군봉 망천후 사이 억겁 광풍이여

그 누구도 다스리지 못하는 광풍이여

조선 만리 무궁한 자손이 이것이다.

보아라 우렁찬 천지 열여섯 봉우리마다

내 목숨 찢어걸고

욕된 오늘 싸워 이땅의 푸르른 날 찾아오리라

—「백두산」1권 서시

② 소는 / 멀뚱멀뚱한 눈 // 나에게 가장 거룩한 사람은 외할머니외다 // 햇

풀 뜯다가 말고 / 서 있는 소 // 아 그 사람은 끝끝내 나의 외할머니가

아니외다 / 이 세상 평화외다 // 죽어서 무덤도 없는

—「외할머니」, 『만인보』 1권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민족혼과 정신이 서려 있는 역사의 발원지이고 신화적인 성소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족의 천지 창조, 역사 창조의

상징이자 역사적 삶의 현장으로서 백두산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두 일곱 권으로 진행돼 온 이 대해서사는 구한말 외세 침탈기와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의 간고한 과정을 파란만장하게 서술함으로써 민족 해방, 민중 해방, 인간 해방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분단 시대의 오늘에 있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찬 사자후를 담고 있는 최대·최장의 서사시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 전무후무할 현재 연작 25권이 간행된 『만인보』는 『백두산』과 짝을 이루면서 이 땅 파란만장한 역사 전개 속에서 온갖 수난과 역경 속을 헤치며 나아가다 들끓처럼 사라져간 민초들의 삶을 통해 인간 평등사상, 만물 평등사상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을 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듯이 삶 앞에서, 생명 앞에서 평등하다는 생명 평등사상, 생명 존중 사상이 장강대하로 굽이쳐 감으로써 우리 현대 시를 대하적 스케일로 확대·심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문학사적 의미와 위치를 지닌다는 말씀입니다.

#### 4. 「삶」, 존재로의 전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고은은 그간 시집만 해도 70여 권, 저서 통권 130여 권을 상회하는 이땅 문학사상 최대의 시인이자 문호형 작가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참모습은 다음 시에서 보다 진가를 발휘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 바람 한 점 없이 / 지는 나무 잎새를  
 바라볼 일이다. / 또한 바람이 일어나서 / 흐득흐득 지는 잎새를 바라볼 일이다.  
 / 우리가 아는 것이 없더라도 / 물이 왔다가 가는 / 저 오랜 썰물 때에 남아  
 있을 일이다. / 짧은 아내여 / 여기서 사는 동안 / 우리가 무엇을 가지며  
 무엇을 안다고 하겠는가. / 다만 잎새가 지고 물이 왔다가 갈 따름이다.

—「삶」 전문

저는 고은 선생의 『만인보』나 『백두산』을 읽을 때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스케일을 지닌 대하시와 대형시인이 있구나 하고 감탄과 존경

의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 대하시 속에는 이 땅 수난의 역사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민족, 민중들의 분노의 함성과 함께 생명의 숨결이 들려오는가 하면 지난날 선구자들이 만주 별판을 내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울려오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편들에는 어려운 시대에는 시가 역사적 응전력과 사회적 비판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힘찬 메시지와 웅혼한 기상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로서는 이 「삶」과 같은 서정시를 더 좋아합니다. 이 시에는 서정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아름답고 쓸쓸한 울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다 하더라도 계절이 지나가는 때에 따라 싹눈이 트고 단풍 들고 잎 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노라면 그 속에 대자연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것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 생명의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크게 배우거나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하더라도, 아침이면 들어왔다가 나가고 저녁이면 다시 들어오는 밀물 썰물을 보면서 그 속에 우주의 맥박과 생명력이 굽이치고 있음을 깨닫는 행복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삶이란 소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누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것을 배워 안다고 할지라도 대자연의 엄청난 풍요와 우주적 질서 속에서 삶 자체를 누리는 일, 그 행복만큼은 못한 것입니다.

참삶은 소유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데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으로써 생명을 즐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자체로서 삶은 이미 필요조건이 채워지고 충분조건이 달성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의미는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질에 있는 것이고, 행복감 역시 억만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또는 작은 평안함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연속성으로 인간 단절과 소외, 불확정성으로 인간 불안과 방향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참존재를 누리는 일, 아름다운 무소유를 살아가는 일일 것임에 분

명합니다. 고은 시인이 호방한 역사주의의 고향 속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의 시를 핵으로 하고 있기에 그의 시 세계는 더욱 광채를 발할 수 있을 것이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 5. 고은, 우리말의 보물 창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은 시가 지니고 있는 우리말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의 시에는 참으로 무수한 우리의 옛말과 지역말,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낸 개인 시어(조어)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가히 우리말 어휘 사전(신어사전)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 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은 고은의 연작시 『만인보』와 대하서사시 『백두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도 25권째 진행 중인 대하연작시집 『만인보』와 일곱 권으로 일단 완결된 대하 서사시 『백두산』에는 고어, 고유어, 토속어는 물론 방언 등이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하며, 특히 조어와 개인 시어가 유독 많이 쓰이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① 돌아가 한 번 잊은 제 / 도로 가고 싶은 / 그이들의 얼바람진 산허리  
—「泉隱寺韻」 부분

② 아주 아주 작은 노 저으며 / 물 가림자 이루어 타 본며  
—「새봄의 향행」 부분

③ 가을날 저물어 들고 / 일새들도 아는 듯 / 제자리마다 저 있는 대로 / 언  
니언니 저 있는 대로 / 벌레 소리로 어둠이 되네  
—「일새 小曲」 부분

④ 어디엔가 울소래들리는 숲 / 저녁이면 으레 문준하는 / 명상으로 지쳐서  
/ 밤이 온다



—「황금시대」 부분

- ⑤ 저 깊은 밤 바다 위에서는 이미 꿈별이 빛나기 시작하며 / 어여쁜 갈치  
아씨가 잡혀 하느님처럼 실려오리라

—「海軟風」 부분

- ⑥ 바다는 성났다가도 너무룩해지며 / 슬픔 없이 어찌 사람으로 사느냐고  
—「이렇게 소라 껍질을 찾네」 부분

- ⑦ 장계맹경 외애릿들 진평구 이야기는 / 그야말로 김치드락 말아 생모치  
아작아작 / 씹어 삼키는 목구멍 맛이라니

—「진평구 이야기」 부분

- ⑧ 이 나라 여성은 싸낙배기 투가리입니다 / 밀구멍 스무개 뚫린 시루입니  
다 / 가마솔입니다

—「을밀대」 부분

- ⑨ 동네사람 꺾꺾수캐나 받아 못살겠어라우 / 외딴집 메주짜이라고 박대하  
니 못살겠어라우

—「영감마누라」 부분

- ⑩ 오목이 어머니 / 그 아금발이 살림 솜씨 / 늘 남자곱고 / 앞치마 폰 적  
없다

—「앵두꽃」 부분

그의 시는 민족 고유어 및 방언 등 민중 언어가 매우 다양하고 섬세하게 활용되어 관심을 끄니다.

먼저 시 ①은 ‘얼바람’, 즉 얼(혼백)이 실린 바람이 덮였다는 뜻의 조어입니다. 시 ②의 ‘가림자’는 그림자의 시적 표현으로 좀 작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이지요. 또한 시 ③의 ‘언니언니’란 언니라는 명사의 정서로만 들어 사용한 표음 부사입니다. 또한 ④의 ‘몬존하는’이란 ‘차분한’이라는

뜻의 고유어이며, ⑤의 ‘곰벌’도 금성을 뜻하는 고유어인 것이지요. 또한 ⑥의 ‘너누룩해지다’는 떠들썩하던 것이 잠시 조용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울러 ⑦의 ‘징계명경’이란 김제 만경들판을 뜻하는 민중어이자 방언입니다. ⑧의 ‘짜낙배기’란 ‘사나운 사람’이란 뜻의 속어이고, ⑨의 ‘끔끔수’란 시련과 멸시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고유어입니다. 또한 ⑩의 ‘아금발이’란 알뜰하게 살아가는 살림꾼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고은의 시어는 고유어와 고어, 방언, 속어, 비어의 활용은 물론 특히 개인 시어를 최대한 조어해서 사용함으로써 그야말로 시집 전체가 하나의 민족어 사전, 또는 민중어 사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민족 사상이나 자유 평등 평화 사상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통일 사상이나 민중 사상도 내용 있는 것들이지만 특히 그의 민족어 완성을 위한 이러한 진력은 참으로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 맺음말: 한 마에스트로를 위하여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꽃」 전문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고은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 시인이며 미래 완료형 시인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시는 이른바 1950~1960년대 허무주의 시대를 통과하고 1970~1980년대 역사주의 시대를 넘어서 21세기 문학 주의 시대로 회귀하면서 민족과 역사의 울타리를 넘어서 범인류적 보편성과 영원 주의 향구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러고 보면 근년에 노벨상의 강력한 후보자로 운위되고 있는

것도 전혀 요행이나 우연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의 인생 70여 년, 문학 50년 반세기에 이르는 온갖 수난과 역경의 삶과 문학의 역정은 실상 고행자의 그것이며 순례자의 그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 속에 굽이치는 생명과 사랑, 평화의 정신은 이제 자연 연령 70여 세, 시단 연조 50년 절정을 넘어서면서 완숙기에 도달해 있는 모습이며, 민족어의 완성을 통해 민족 정서와 혼을 갈고 닦는 노력은 이미 마에스트로, 즉 거장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가 오래지 않아 그의 오랜 땀과 눈물의 결정인 문학을 통해 언젠가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민족혼과 인류적 양심 및 정의의 길을 더욱 크게 열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